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현황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

이상학* · 황영현** · 권영일***

I. 서론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 경제 부흥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1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전 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새로운 정책이 도출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유관기관에서도 창업과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염원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가 마음껏 사업화될 수 있는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안내되어온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국가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30일에 신설되었다(박선영, 2013). 창조경제타운이 생긴 이후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 중인 총 3,900여 건이며, 2년 새 7만 7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28만여 명이 방문해 누적 페이지뷰가 1,700만건에 이른다. 어지간한 대기업 홈페이지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를 통해 총 2만 6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이 중 200여 건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됐고, 1,300여 건이 사업화 과정에 있다. 창조경제타운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식기부를 통한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한다. 사업화, 창업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자, 투자자, 경영 및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다양성을 통한 창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 및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된 다양한 성공사례 체험 및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의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민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혁신이 가능하다. 한국형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발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현황을 분석하고, 창업 주체별로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창조경제타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II. 본론

1. 아이디어 평가 프로세스

1) 단계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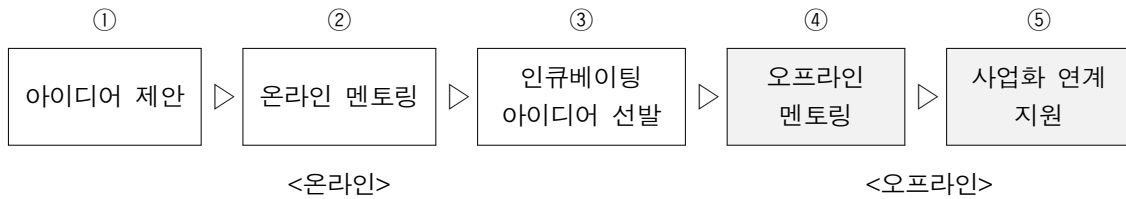
창조경제타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 이상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선임연구원, 02-3299-6084, leesh@kisti.re.kr

** 황영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단장, 02-3299-6161, younghunh@kisti.re.kr

*** 권영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책임연구원, 02-3299-6031, ylkwn@kisti.re.kr (교신저자)

지원 플랫폼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이다. 창조경제타운의 평가프로세스는 아이디어 제안, 멘토링, 부처 및 민간 연계 지원, 사업화 창업의 지원방식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창조경제타운 프로세스

아이디어 제안은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선발하고,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사업화 및 기술적으로 육성하는 오프라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각 부처 및 민간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하게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①, ②, ③은 온라인상에서 지원하고, ④, ⑤는 오프라인상에 지원하는 것으로 창조경제타운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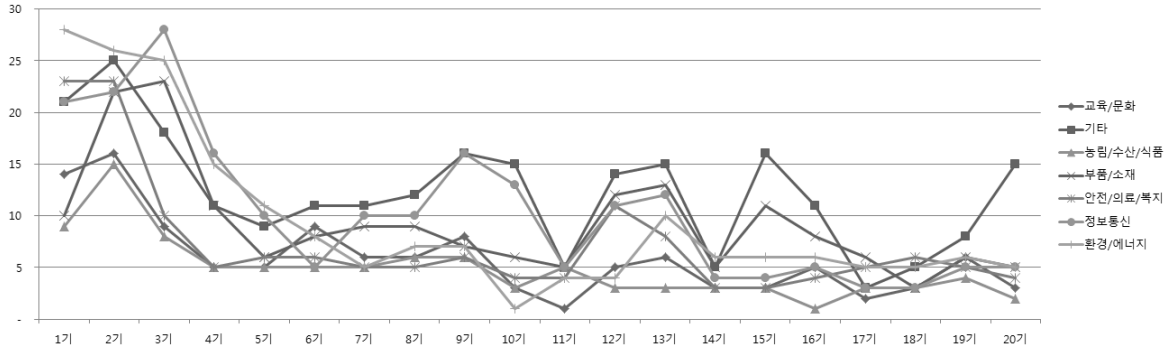
창조경제타운에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평가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기술성은 우수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활용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장성은 시장규모, 경쟁상황, 제품 경쟁력, 수요 전망을 평가항목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은 5점 척도로 구분하고 총점 8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창조경제타운의 제안되는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자들은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양질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및 창업까지 연계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되는 아이디어 수준은 단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성 지표에서 시장규모 또는 경쟁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일 경우 더욱 평가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멘토들이 좀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제공하여 세부적이고 면밀한 아이디어 평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1> 창조경제타운 평가 지표

기술성 지표	시장성 지표
우수성	시장 규모
독창성	경쟁 상황
실현 가능성	제품 경쟁력
활용성	수요 전망

2. 아이디어 현황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총 24,702건으로, 이 중에서 선발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는 1,190건이다.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아이디어 접수기간을 한달로 지정하므로, 1기부터 20기 까지 기수별로 아이디어 제안건 수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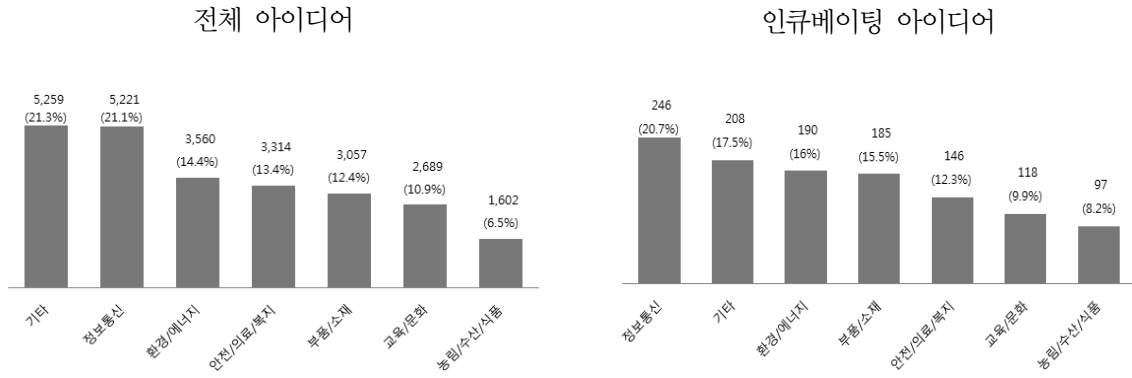
창조경제타운에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분야를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안전/의료/복지, 농림/수산/식품, 정보통신, 부품/소재, 기타 등 7개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멘토를 지정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분야별로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분야별 아이디어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분야

분야	세부내용
교육/문화	교육 콘텐츠, 예술, 디자인 등
환경/에너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 등
안전/의료/복지	사회안전, 의료, 복지 등
농림/수산/식품	농업, 수산업, 식품 등
정보통신	App, IoT, ICT 융·복합기술 등
부품/소재	전기/전자 제품 등의 각종 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소재기술 등
기타	상기 6개 분야에 속하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분야가 융합된 아이디어 등

1) 분야별 아이디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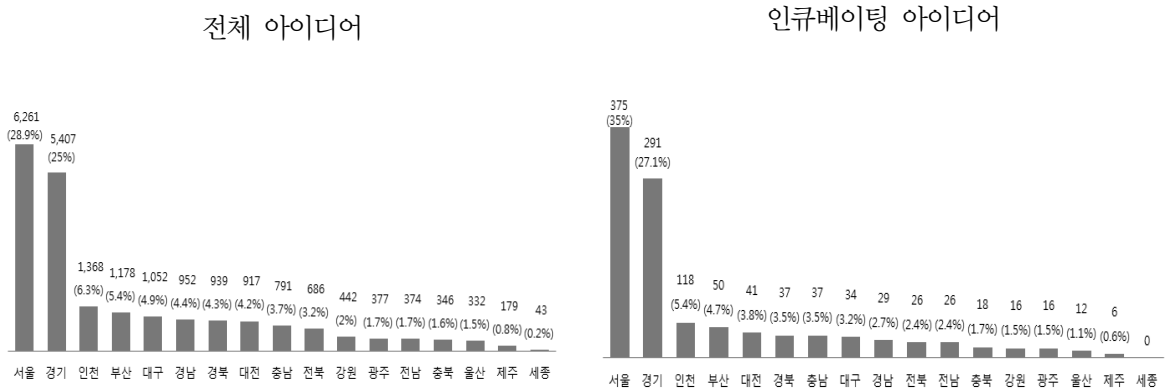
분야별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분과 246건(20.7%), 기타분과 208건(17.5%), 환경/에너지분과 190건(16%), 부품/소재분과 185건(15.5%), 안전/의료/복지분과 146건(12.3%), 교육/문화분과 118건(9.9%), 농림/수산/식품분과 97건(8.2%)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분과별 평균적으로 17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5)와 같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통신분과의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는 전체 대비 47.1%로 가장 많이 선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되는 아이디어 분야가 S/W, APP 등 ICT 분야의 아이디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분야별 현황

2) 지역별 아이디어 현황

지역별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서울 375건(35%), 경기 291건(27.1%), 인천 118건(5.4%)이며, 그 외 지역은 100건 미만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미기입 데이터 118건은 제외하였다. 상세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는 전체 대비 59.8%, 53.8%로 아이디어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에 창업관련 기관 또는 지원 정책들이 많아 지역적인 불균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아이디어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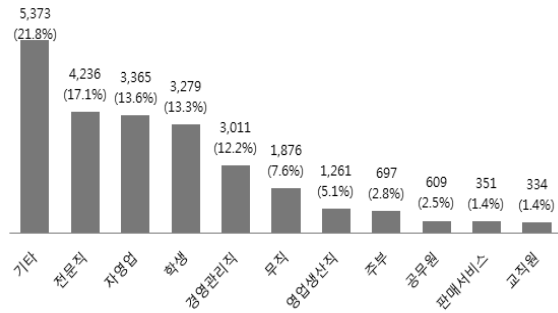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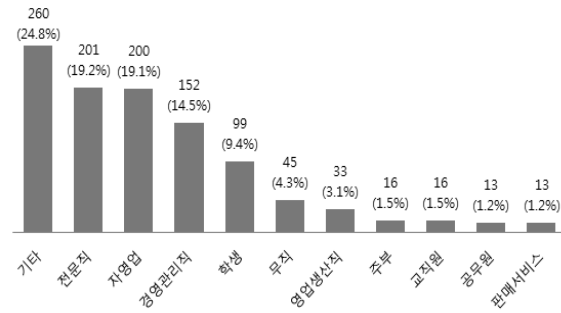
3) 직업별 아이디어 현황

직업별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기타 260건(24.8%), 전문직 201건(19.2%), 자영업 200건(19.1%), 경영관리직 152건(14.5%), 학생 99건(9.4%), 무직 45건(4.3%), 영업생산직 33건(3.1%), 주부 16건(1.5%), 교직원 16건(1.5%), 공무원 13건(1.2%), 판매서비스 13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기입 데이터 142건은 제외하였다. 상세 내용은 (그림 7)과 같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타 직업군이 전체대비 48.3%로 나타나는데, 제안자의 직업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문직과 자영업의 아이디어 제안 수가 두드러 지는데,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자유로운 직업군의 제안자들이 비교적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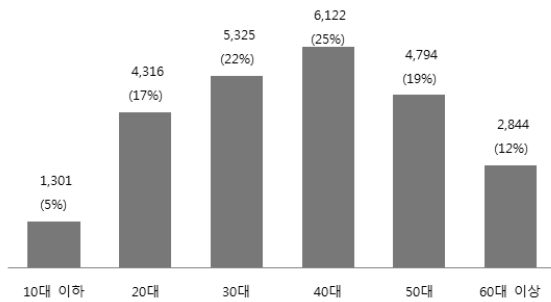


(그림 7)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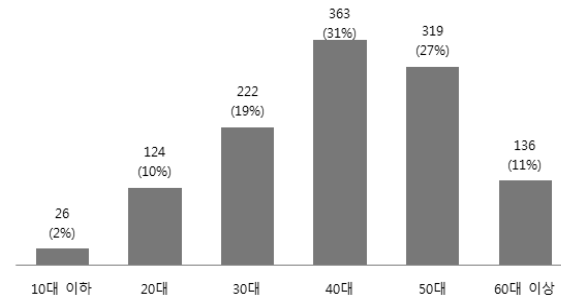
4) 연령별 아이디어 현황

연령별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10대 26건(2%), 20대 124건(10%), 30대 222건(19%), 40대 363건(31%), 50대 319건(27%), 60대 이상 136건(11%)로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아이디어 제안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타운의 실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을 나타낸다. 40대 제안자가 전체대비 59.2%로 가장 많은 제안과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선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대 중장년층의 창업이나 재취업, 제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요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전체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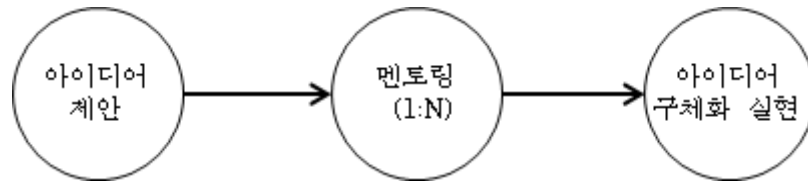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별 현황

2. 창조경제타운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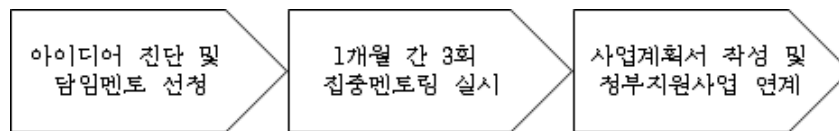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창조경제타운 주요 활동인 온라인 멘토링은 멘티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창조경제타운에서 활동하는 아이디어 분야별,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멘토를 지정받아 온라인 기반의 멘토링을 실시하고, (그림 2)와 같이 아이디어 구체화를 실현하게 된다. 창조경제타운 소속 멘토는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R&D 인력 및 경영, 회계, 법률, 금융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티는 멘토와의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림 2) 온라인 멘토링 프로세스

오프라인 멘토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경영자문단 멘토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발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실시하여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오프라인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는 담임멘토를 지정받아 한달간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멘토링을 3회 지원 받기 때문에 집중멘토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화 연계실적은 창업교육 및 멘토링, 아이디어 권리화, 시제품 제작, R&D 등 230여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세스

2) 사업화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창조경제타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타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사업화 단계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세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한다.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4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보완 및 개선,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화 준비 단계에서는 창업교육 및 보육기관 지원, 사업성 진단, 시제품 제작 지원에 도움을 준다. 3단계 사업화 추진 단계는 사업계획서 지원, 자금 보증, 투자유치 알선, 정부/민간 지원사업 연계, 기술 개발 및 이전거래 지원을 하고 있으며, 4단계 시장진출 단계에서는 유통 판로 연계, 글로벌 진출 등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 창조경제타운에서 연계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시제품 제작, 인프라 지원, 창업보육기관 지원, 개솔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 민간 엑셀러 레이팅, 자금 보증 및 투자, 유통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9개 분야로 구분하고, 전체 아이디어 및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추천,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공모전 운영 등 연계를 이루어 진다. <표 3>과 같이 총 40여개 이상 관련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각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선발된 제안자들은 창조경제타운에서 연계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해당사업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창조경제타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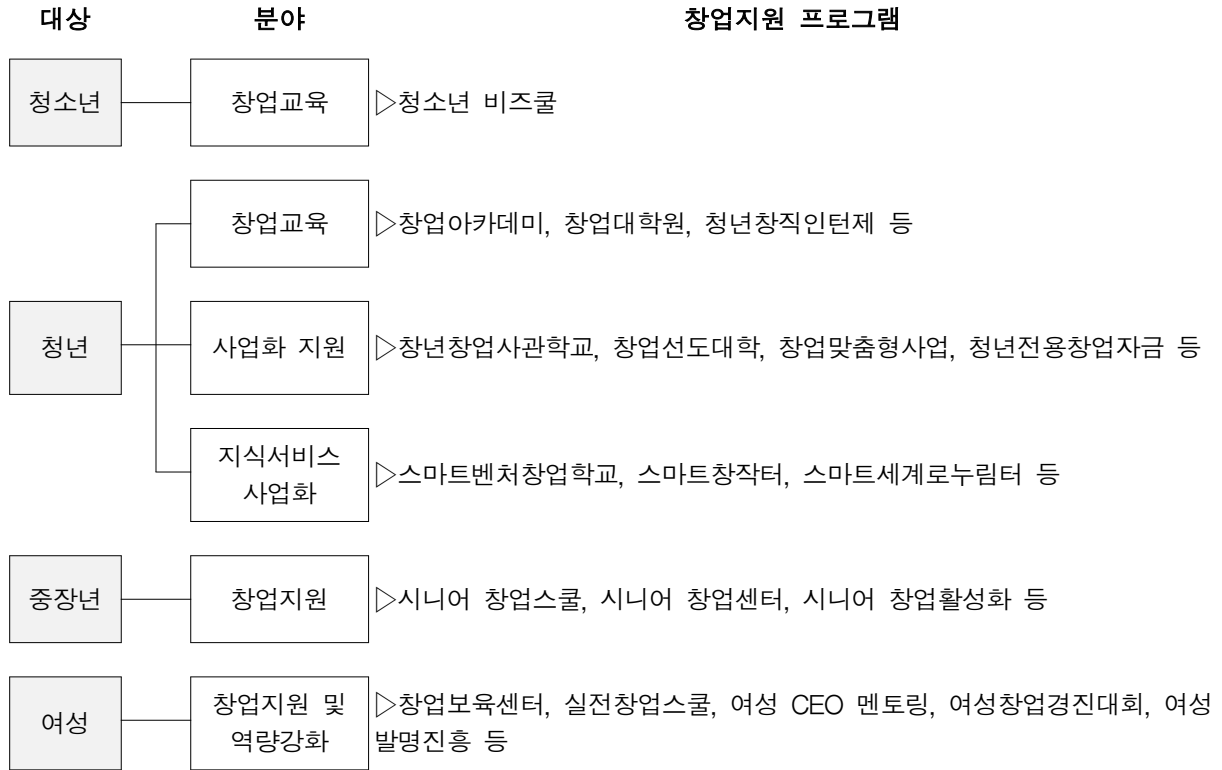
<표 3>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연계 및 지원 분류

분야	연계 방식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추천	· 미래글로벌/벤처 1세대 멘토링, 지역재산 인력양성교육,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지역지식재산센터(IP zone)
	가점	· 스마트벤처 창업 학교, 스마트 창작터
	공모전	· 스마트 미디어 X 캠프, 양방향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추천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기술사업화, 생활발명코리아,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공고	· 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시제품 제작, 인프라 지원	추천	· 시제품 제작터, 창업공작소, 창의디바이스랩, 친환경경제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창업보육기관 지원	가점	· 역외 창업 보육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솔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	추천	·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디지털 콘텐츠코리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BI연계), 정보통신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가점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전체 추천	·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창업맞춤형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식재산거래지원사업,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 &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민간 엑셀러레이팅	추천	· SK텔레콤 브라보 리스타트,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삼성 C-lab 벤처창업 공모전,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자금 보증 및 투자	전체 추천	· 기술 특례 보증, 드림 K-엔젤스 투자설명회, 창조경제 투자 퍼레이드, AVA엔젤클럽 투자설명회, 유망 창업 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창조경제 데모데이/한남대 데모데이
유통 판로 개척	추천	· 롯데 창조경제 마트, KTH K쇼핑
	가점	· 중소기업 홍보지원
글로벌 진출	추천	· KIC-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에코베이팅, KIC-워싱턴 Start Mass Challenge, 글로벌 K-스타트업

3) 창업 주체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창조경제타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창업 및 사업화 실적으로 내고 있으며, 창조경제타운이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실적이 도출되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고 활성화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창조경제타운의 역할이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성화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혁신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맞춤형 정책서비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여성 등 연령별로 (그림 9)와 같이 재구성하였다(경제혁신포털, 2015). 10대 이하 청소년층은 청소년 비즈쿨을 통해 청소년의 도전정신, 창의력을 함양하고 기업이 정신을 확산하고자 비즈쿨 학교를 지정, 정규교육 과정, 창의활동 및 방과 후 시간, 방학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창업 및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층은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 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실현할 수 있다. 50대에서 60대 이상은 시니어창업스쿨, 시니어 창업센터 등을 통해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창업 및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대상 창업보육센터,

실전창업스쿨, 여성발명 진흥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은 각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부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9) 연령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III. 결론

현재 국내 창업 현황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25세미만 1,000명당 창업 기업 수는 연평균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5개년 세계 평균인 3.6개 기업대비 1.7개 기업이 창업을 하는 것으로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3). 두 번째, 생계형 창업이 전체 창업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창업 목적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 자체로 질적 수준이 낮으며, 생계형 창업 대비 기회형 창업 비중이 1.4이며, 혁신주도형 국가 평균 2.9의 50% 수준이다(GEM 2013). 세 번째,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환경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 창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인 법인 설립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대략 300만원으로 절대값 기준 OECD 평균의 3.7배이며, 미국 80만원 수준의 4배이므로, 창업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창업 비용 조달에 대한 금융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이도형 2015). 창조경제타운의 평가 프로세스, 아이디어 현황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국 창업 확산, 창업환경 및 창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업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며, 창업자 역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창업의 3요

소는 사람, 자본, 아이디어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창업주체별로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멘토의 전문성과 역량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제혁신포털(2015), “맞춤형 정책서비스”, <http://www.economy.go.kr>.
- 박선영 (2013), “아이디어 창업·사업화를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정보 제공 체제연구”, 박선영 외 2인 공저,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10월), 732-741.
- 이도형(2015),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안 기획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2-57.
- 조선일보 (2015), “아이디어만 있으면 OK...‘온라인 멘토’가 창업까지 돕는다”, (2015.10.7.), 7면.
- 창조경제타운(2015), “창조경제타운 사업 지원 정보”, <https://www.creativekorea.or.kr/business/organizat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5), 「아이디어 사업화 창조경제타운에서 길을 찾다」, (2015.10.).
-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www.Worldbank.org>.
- GEM (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United Kingdom 2012 Monitoring Report.